

명태균 “오세훈에 빛 받으러 왔다… 같이 일했는데 고발”

2025 국감

명태균,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공표 여론조사 13차례 실시 주장 내달 8일 대질신문 예정에 말 아껴 황금폰 포렌식에 관련 내용 나와 오세훈 ‘2번 만남’ 거짓… 7번 만나

2023년 10월부터 정치권에 등장했던 이름, ‘명태균’ 씨가 23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타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다. 명씨는 이 자리에서 “오늘 오세훈에게 빛을 받으러 왔다”고 말했다.

명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으며, 비용은 오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대신했다고 주장해왔다.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하고 관계를 끊었다며, 관련성을 부인했다.

명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“오



‘정치브로커’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옆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자리에서 앉았다. /뉴스시스

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,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”면서도 “대질신문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서 다 말을 하면 (오세훈측이)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다 말은 못하고, 오늘은 오세훈이 떠든 것에 대해 말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명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내달 8일 대질신문을 할 예정이다. 그는 “(20개 혐의 등에 대한 것은) 대질신문 후 페이퍼로 나눠드리겠다”고 덧붙였다. 당초 명씨는 오 시장과 관련한 20개 혐의를 국감장에서

제시하겠다고 했으나, 특검 대질신문에 대비해 이날은 말을 아끼겠다는 의미다.

하지만 명씨는 국감장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. 그는 “교도소에 구속돼 있었는데 오 시장이 저를 고발했다.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 한 개도 없다”며 “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쫓쫓하게 고발을 한다”고 말했다.

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해 오 시장과 주고받은 객관적 증거

가 있는 질문에 “주고 받은 게 있다”면서 “황금폰 포렌식을 하는데 오세훈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온다. 오세훈 시장이 저를 2번 만났다, 내쫓았다 (하는데), 거짓말이다. 7번 만났다”고 밝혔다.

반면 오 시장은 명씨 발언에 대해 “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 오 시장은 “5월에 검찰에 대질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안 됐고, 이번에 특검에서 받아들여졌다”며 “제가 대질에서 밝히고 싶은 것

들이 많다. 여기에서 밀전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”고 밝혔다.

그럼에도 명씨는 계속 주장을 이어갔다. 명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에 관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“여의도에 갔을 때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을 소개시켜주려 하기에 제 얼굴이 배신·배반 형이어서 안 만나겠다고 도망을 갔다”며 “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날 것을 독려했다. 그래서 중국집에 갔다가 광진구 구의동 쪽에서 12월 9일에 오세훈을 만났다”고 답했다.

그는 또 “처음으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와서 2호선 타고 온다. 거짓말할 게 뭐가 있나. 문자, 카톡 다 나와 있는데”라며 “당협 사무실에서 만났고 김종인도 만났다. 27일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, 31일 또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조은희도 만났다”라고 말했다.

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“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1월 8일 오전 10시에 오 시장을 소환해 명씨와 대질신문을 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오 시장은 지난 5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.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은 처음이다. /서예진 기자 syj@metroseoul.co.kr

“APEC정상회의, 냉전 장벽 넘은 서울올림픽처럼 새 장 열어내야”

李 대통령 ‘수석·보좌관회의’ APEC 정상회의 준비 총력 지시 美中·北美 정상회담 가능성에 ‘신냉전’ 정세 해소 염원 드러내

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의 준비와 관련해 “전후 80년인 올해 세계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”며 “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

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·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APEC 정상회의의 준비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. 오는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의장국으로 처음 주최하는 다자외교 행사다.

이 대통령은 “특히 인공지능 전환,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구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

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”며 “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, 시진핑(習近平) 중국 국가주석 등 2강의 정상이 방한한다.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긴 회담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, 미중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연출된다.

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도 언급하면서, ‘깜

짝’ 북미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.

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1988년 열린 서울올림픽을 언급한 것이다. 현재 국제정세는 ‘신냉전’ 상태라 할 수 있는데, 이번 APEC을 기회로 삼아 신냉전을 해소하길 바라는 염원을 드러낸 셈이다.

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수석·보좌관회의에서 ‘K-방산 육성’ 방안을 논의했다. 이 대통령은 “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”며 “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”고 했다.

이어 “대대적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,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방위산업의 미래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”며 “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그러면서 “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”고 지시했다.

/서예진 기자

韓美 관세협상 서명 가능성에 “상당히 많은 시간·노력 필요”

李 대통령, 美 CNN 인터뷰 진행 APEC 계기 타결 가능성 낮게 봐 “합리적 합의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”

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(MOU)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“조정·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”며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.

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통상 협상 타결 가능성에 이같이 답했다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방한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, 이때 한미 관세협상의 MOU가 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보인다.



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CN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. /대통령실

다만 해당 인터뷰는 전날(22일)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.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 D.C.에서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지난 19일 귀국한 이후다.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 조정·교정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.

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“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”며 “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”고 했다. 미국의 3500억달러 ‘현금 투자’ 요구가 무리하며,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. /서예진 기자

“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적이익 취해”

李 대통령 “민주주의·법치주의 파괴 법·원칙 따라 엄정 처리하고 단죄해야”

이재명 대통령은 23일 “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,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”고 질타했다.

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“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.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,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”라며 “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

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하겠다”고 지시했다.

그러면서 “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,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,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또 “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”라며 “특정한 사적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(공직 권한을)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”이라고 주문했다. 이어 “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, 최소한 지금 이순간부터는 공직 권한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 /서예진 기자